나라 달라도 봉축 기쁨 '한마음'

재한이주민법당 '웨삭데이'
캄보디아 등 5월 7일부터
몽골은 윤달기준 6월 6일
행사 축소해 위로법석으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캄보디아 불교센터가 5월 7일 봉행한 웨삭법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국 재한이주민법당도 봉축법회를 잇따라 봉행한다.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등 상좌부 불교의 부처님오신날은 '웨삭데이'라고 일컬어지며 올해는 5월 7일(음력 4월 15일), 몽골과 티베트 등 북방불교의 부처님오신날은 윤달 기준 음력 4월 15일인 6월 6일이다. 각국마다 봉축의식과 문화는 조금씩 다르지만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은 같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상당수 재한 이주민 법당이 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어려운 시국 가족과 떨어져 외롭고 불안한 이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발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평택에 위치한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사원(주지 담마끼띠)은 5월 23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한국 불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 오후 4시~5시, 5월31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스리랑카 불자들을 대상으로 '웨삭데이' 법회를 봉행한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애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웨삭데이 행사를 생략하고 당일 스님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예불만 진행하려고 했지만, 불자들의 요청으로 공식법회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고국에 있는 가족·친지들의 안위를 발원하기 위한 축원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본국 스리랑카 불교협회는 올해 웨삭데이 행사를 전면취소했다.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이주민들이 그동안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린데 이어 최근에는 스리랑카의 감염률이 급증하면서 본국에 있는 가족 걱정까지 더해져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근 마하위하라 신도들 중 4명이 우울증 및 조현병 증상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내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수도 올 상반기만 50명이 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웨삭법회는 관념명상 수행과 보배경 독송과 법문 등 마음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매년 웨삭데이마다 2000여명의 인원이 모여 며칠간 성대한 법회를 봉행해 온 천안 베트남사원 원오사(주지 팃뜨엉탄)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행사를 전면 축소했다. 특히 지역법회 일정을 모두 취소할 방침이었으나, 지역 불자들의 강경한 요청으로 천안 원오사와 울산 두 곳에서만 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울산 법회는 5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천안 법회는 5월 17일 오후 5시 봉행된다.

캄보디아불교센터(주지 린사로)도 캄보디아력으로 웨삭데이 당일인 5월 6일 저녁 사원을 방문한 불자들만을 대상으로 간단한 법회를 진행했다. 캄보디아식 웨삭법회는 탁발의식까지 3일간 진행되지만 올해는 법회 외 모든 행사를 취소했다. 린사로 스님은 "4월31일 주한캄보디아대사관 롱 디망쉐 대사 가족과 불자들이 방문해 축원으로 웨삭법회를 대신했다"며 "올해는 행사 없이 웨삭데이 관련 법당을 방문한 불자들을 위해 간단한 의식만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네팔사찰 텍첸사(주지 쿤상)는 5월 31일 웨삭법회에 이어 6월 6일 티벳식으로 사가다와(부처님의 달) 법회를 봉행한다. 쿤상 스님은 "법회를 네팔식으로 진행할 경우 오전 6시부터 밤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국식 예불과 간단한 법문으로 최대한 간소하게 봉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몽골법당은 올 6월 6일, 몽골력 기준 4월 보름날이 맞이하지만 전면축소를 염두에 둔 채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고 있다. 바트보양 스님은 "매년 법당에서 봉축법회를 하고 한강에서 민물고기를 방생하는 의식을 해왔지만 올해는 외부에서 방생법회만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속 도농상생 조계사 직거래 장터

코로나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직거래장터가 서울 조계사서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 등을 한 불자들은 농민들을 위한 십시일반 물품구입에 나섰다.

서울 조계사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일주문 옆 주차장에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육농이 나르샤'를 개최했다. 이날 장터에는 코로나로 인해 예년 6개군과 달리 강진과 영암, 함평, 해남 등 4개군이 참여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농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기간임에도 장터를 열게 됐다. 물품을 구입하는 장터가 아니라 농민들을 살리는 장터"라며 "불자들이 농촌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2017년부터 매월 초하루부터 의성, 함평, 강진, 해남 등 6개 군과 장터를 열어 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코로나 극복 기부 릴레이

직원노조·처부장회
장학금 8천만원 기부



동국대 정왕근 노조위원장(왼쪽)과 김대욱 총무처장(왼쪽 세번째)이 5월 6일 윤성이 총장을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8000만원을 기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국대 구성원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5월 6일 동국대 노동조합과 처부장회 회원 일동이 윤성이 총장을 찾아 8천만원을 전달했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부금 전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학금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동국대 노동조합 정왕근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학교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과대 교수님들과 학교 정책위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도 함께 힘을 모았다. 이렇게 의미 있는 기부 릴레이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된 마음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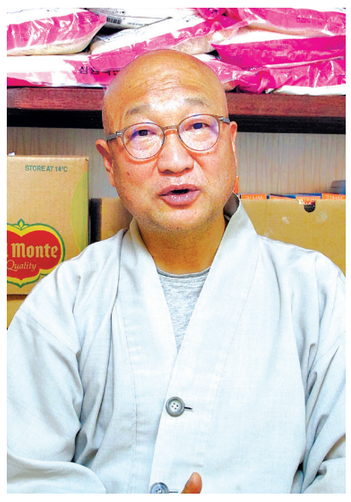
이에 윤성이 총장은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부 참여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구성원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 사태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보니 어느 때보다 동국대학교가 하나 된 기분이 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성이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곽채기 교무부총장, 김관규 연구부총장,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동국대는 4월 27일부터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긴급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5월 31일까지 교수, 직원, 동문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소외계층 돕는 사람들 ① 다나 대표 탄경 스님

"어려울 때 도와야 '眞종교' 뜻이 있으면 길 있기 마련"



코로나에도 노숙인 지원행
평소보다 30% 후원 줄기도
도반들 도움으로 밥차 마련
새로운 지원사업 추진 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지난 2~3월. 역병은 가난한 자에게 더 잔인했다.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거리의 노숙인들에게는 더한 고통이었다.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 보살폈던 스님이 있다. 바로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이다.

5월 7일 다나 사무실에서 만난 탄경 스님은 "거리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도망칠 수 없었다"고 노숙인 지원을 이어갔던 이유를 밝혔다.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고 노숙인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한 끼 식사마저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여느 때와 같이 지원을 지속했다.

탄경 스님은 매주 토요일 새벽 3시30분 컵라면, 즉석식품, 초코파이 등을 수레에 실어 봉사자들과 함께 광화문, 을지로, 탑골공원 등지의 노숙인들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름다운동행에서 마스크 1440장을 지원받아 이를 5개들이 1개 세트로 개별포장해서 매주 노숙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스님은 "편안할 때 남에게 도움은 누구나 줄 수 있다. 어려울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종교"라며 "종교는 어려울수록 이웃을 더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평소 도반 스님들과 신도들에게서 정재를 후원받고 있다. 저에게는 노숙인과 쪽방촌 지원이 수행"이라며 "이를 생각하면 더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나에 들어오던 후원은 30% 가량 줄었다. 하지만 스님의 말처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마련"이었다. 어려워질 때마다 신기하게도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특히 도반 스님들의 도움이 컸다. 한솔종합복지관장 가섭 스님은 통조림 등 노숙인 지원 물품을 후원해줬으며, 다나의 해외지원 사업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이 많은 도움을 줬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밥차를 마련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게 된 것도 수계 도반 정인 스님(조계종 포교부장)과 진광 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탄경 스님은 "학생 시절 남산서 노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름이었는데도 한기가 들었다. 노숙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항상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었다"면서 "5월 20일에 차량을 인수한다. 첫 지원은 연기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전에 종로 익선동 쪽방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회를 중단하고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불교계의 모습이 진정한 '호국불교'의 모습이라고 했다.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산 속으로 숨고 관제화됐던 불교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남을 돕는 모습이 올바른 '호국'이라는 것이다.

탄경 스님의 최종 목표는 어려운 사람들이 어느 때나 찾아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24시간 지원급식소'를 세우는 것이다.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가능하도록 해야죠. 좀 더 제가 동냥하고 다니면 됩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랬다. 본디 비구의 의미는 '걸사(乞士, 걸식하는 사람)'였다.

신성민 기자

후원문의 (02)730-0715
후원계좌 006001-04-311125
국민은행 (사)다나

